

PFM 수복물의 연조직 문제점 극복



이승규 미지치과의원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부속치과병원 보철과
- 육군 치과군의관
- 현) 미지치과의원 근무
경희대학교 부속치과병원 외래강사

바야흐로 21세기에 들어 우리 사회에 "루키즘"이란 신조어가 탄생되었다.

"루키즘"이란 소위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말로써 인종, 종교, 이념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로 대별된다. 이러한 사회 풍조는 치과계에까지 파급되어 자신의 외모 개선만을 위해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심미 수복 치료는 치과의사와 치과 기공사 그리고 환자간의 상호 협조에 의해 완성되는데, 그 목적으로

- 1) 안모 및 구순의 조화
- 2) 적절한 치관 형태의 회복
- 3) 적절한 색조의 회복
- 4) 지대치 주위 조직과의 조화에 있다.

이들 중, 지대치 주위 조직과의 조화는 치과의사의 역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지대치 주위 조직과의 조화를 보면

- 1) Health of periodontal tissue
- 2) Shadow around abutment tooth
- 3) Black triangle
- 4) Pontic design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수십 년간 전치부 심미 수복시 금속-도재(PFM) 수복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거의 선택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 변연부의 shadow 발생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복된 치아 주변 연조직이 자연치 부위와 다르게 붉게 발적되거나 퇴축되는 등의 문제점을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전치부 심미 수복에 있어 지대치 주위의 연조직 부위의 문제점으로

- 1) 치주조직의 건강과
- 2) 지대치 주변의 shadow에 대해 여러 임상 증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